광주 '자전거 전용 횡단도' 설치

市, 35곳 5천여만원 투입

광주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주요 도로 35곳에 자전거 전용 횡단도를 설치한다. 자전거 도로의 연계성을 높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15일 시에 따르면 서구 상무역에서 상무교까지 6곳, 서구 서창 입구에서 풍암교차로까지 10곳, 광산구 평동역에서 평동산단까지 8곳, 광산구 임방울대로에서 첨단로까지 11곳 등에 자전거 전용 횡단도를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모두 5천7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안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전거 전용 횡단도 설치는 광주·전남에서 처음이며, 시는 내년에도 자전거 횡단도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그동안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는 자동차로 분류돼 자전거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를 이용하게 돼 있었다.

시 관계자는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전용 횡단도를 설치한다"며 "자전거 전용 횡단도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서구 운동본부' 출범식이 15일 오후 광주 서구문화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박광태 광주시장, 전주언 서구청장 등 참석자들이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다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다른 시·도 기초단체 통합 배제"

행안부 방침 … "100만 넘어도 광역시 승격 없다"

정부가 다른 시·도 기초자치단체들의 통합은 배제하기로 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논의되는 지자체간 통합구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정부가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마련하면서 다른 광역시·도 기초지자체들의 통합은 여건상 쉽지 않아 자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타 시·도간 통합은 추후 국회에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 과정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학계 일각에서 '자율통합이 도 폐지의 전 단계'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도를 어떻게 할지를 하나도 정한 것이 없다. 이번 자율통합과 시·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체제 개편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통합으로 인구가 100만명이 넘더라도 광역시로 승격시키지 않을 것이다. 100만명이 넘는 지역은 관계 법률을 개정해 행정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통합 신청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목포·무안·신안, 남양주·구리, 청주·청원, 전주·완주, 의정부·양주·동두천 지역 등 5곳을 꼽고 있다. /연합뉴스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땐 내달부터 채권매입 면제

10월1일부터 광주 지역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광주시는 15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금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시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금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초과한 경우 1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법원 "가라오케는 유흥주점 아니다"

특소세 부과 대상 안돼

가라오케는 유흥주점이 아닌 만큼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가라오케를 운영한 백모(48)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취소 청구 소송에서 "특별소비세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업소에서 룸 DJ가 있었지만 DJ는 손님들이 요청하는 경우 노래와 춤 등으로 흥을 돋우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라며 "연예인 지망생이나 직업 DJ가 대부분으로 이들을 유흥부녀자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특별소비세법은 유흥주점 등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유흥주점은 주류를 판매하면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해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업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숲의 도시' 된다

2014년까지 주요 도로 '녹음 터널숲' 조성

광주시가 지역 내 모든 주요도로를 '녹음 가로숲길'로 조성하는 방안을 수립, 사실상 '숲의 도시'로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오는 2014년까지 6년에 걸쳐 5개 자치구에 각 지구를 두고, 녹음 터널 숲 조성과 비탈면 식재에 나선다는 것이다.

1천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통해 도심 녹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시는 지역 내 주요도로를 숲길로 조성하면서 자가용 중심의 교통정책도 보행과 대중교통 중심으로 변화시킬 방침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11년까지 1단계로 각 자치구 기초자료 및 전문가 의견 반영에 나서 '녹음 가로숲길' 시범지구를 조성하고, 2014년까지 2단계로, 1단계를 보완하면서 전 시가지로 이를 확대시킨다.

올해 우선 36억원을 들여 18개 지구 37곳에 녹음 터널 숲을 조성하고, 11곳의 비탈면에 나무를 식재하며, 오는 2011년까지 모두 18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9개 지구 80곳에 녹음 터널 숲을, 46곳의 비탈면 녹화를 각각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시의 '녹음 가로숲길' 조성으로 인해 자가용 중심의 교통정책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걷기 편한 환경이 갖춰지면서 교통정책의 수립 및 실행에 있어서 '보행·자전거·대중교통'을 중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시는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앞두고, 세계인들에게 숲의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고, 시민들에게 자연환경을 도시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며,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도 일치하는 등 1석3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녹음 가로숲길' 사업은 가로수가 없는 곳은 1열 가로수를 식재하고, 추가로 식재 가능한 모든 보행공간에는 2열 숲을 조성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시내를 관통하는 주요 관문 가로의 비탈면에는 철쭉, 개나리 꽃길이 조성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명창 임방울 선생 흑백사진 '눈길'

사진작가 이현근씨 공개

광주가 낳은 명창 임방울(1904~1961) 선생의 선명한 흑백 사진 1장이 공개됐다.

사진작가 이현근(60·전 전남도교육청 근무)씨는 15일 "임방울 선생이 나의 선친인 이남주씨와 함께 기념 촬영한 흑백사진을 소장하고 있다"며 관련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1950년대 후반쯤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진은 당시 엄청난 인기몰이를 했던 임방울 선생이 여수에서 공연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씨의 아버지가 여수에 내려가 공연을 관람하고 임방울 선생과 함께 사진관을 찾아 기념 촬영한 것이다.

이씨는 "인터넷에서 임방울 선생의 사진을 검색해봐도 대부분 희미한 모습으로 찍혔고, 선명한 흑백사진은 드문 것 같다"며 이 사진을 임방울국악진흥회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성기 임방울 선생(앉아있는 사람)이 공연후 관람객과 기념 촬영한 사진.

임방울국악진흥회 김상윤 사무국장은"내년 2월 진흥회 사무실을 옛 전남체육회 건물로 이전하고 나서 임방울 선생 사진들을 전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꼼꼼히 체크 잘하고 있습니다

"신정아씨 허위 학력조회로 큰 손실봤다"

동국大, 美 예일大 상대 5천만달러 소송

합의여부 등 '결심' 임박

신정아씨의 허위 학력조회의 책임을 두고 동국대와 예일대가 벌이는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이 이달 말 합의 여부를 가리는 '1차 결전'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동국대는 예일대가 신씨의 위조 박사학위를 진짜인 것처럼 잘못 확인해 줘 큰 손실을 보았다며 지난해 3월 예일대를 상대로 5천만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미국 코네티컷주 지방법원에 냈다.

15일 동국대에 따르면 두 대학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재판에 앞서 사건 당사자의 증언을 듣는 '증언녹취(deposition)' 절차를 끝내고 배상액을 합의할지, 정식재판이나 약식 판결 신청을 할지 결정하게 된다.

동국대는 2005년 9월 교수 임용에 앞서 예일대에 신씨의 박사 학위를 확인해 달라며 등기 우편을 보냈다가 해당 학위는 진짜라는 셔마이스터 부원장 이름의 팩스 문서를 받았다.

그러나 2007년 7월 신씨의 학력 위조 사실이 밝혀지자 예일대 측은 '팩스 회신이 위조됐다' '동국대의 학력조회 요청서한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다 같은 해 11월 "셔마이스터 부원장이 실수로 잘못된 내용의 팩스를 보냈다"고 시인했다.

동국대는 이후에도 학력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신씨를 교수로 채용했다는 비판에 시달려 입시지원율이 떨어지고 기부금과 정부 지원금이 주는 등 574억원에 달하는 물적 피해를 보고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정중오(551210-1651113)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느단 451
공 고 인:김순자
한정승인수리일:2009. 8. 24.
공고기간:2009. 9. 16~2009. 11. 15(2개월)
연 락 처:서울 양천구 신월동 1006-21 두손파스텔 404호 김 순 자 (010-7679-7456)

광고접수안내 ☎ 227-9600 FAX 227-9500

광주국도관리사무소 공고 제2009-132호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자가 있을 경우 광주국도관리사무소 또는 해당 공사 현장사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내에 신고자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또한 이외의 추가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에 갈음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분묘의 소재지	분묘기수	분묘번호
전남 해남군 북평면 영전리 산 165	2기	NO.2,3
전남 해남군 북평면 영전리 산 169	3기	NO.4,5,6
전남 해남군 북평면 영전리 1627-3	2기	NO.7,10
전남 해남군 북평면 영전리 1821-1	2기	NO.8,9

2. 개장사유 : 국도 77호선 해남 남천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에 편입
3. 개장 후 안치장소 : 납골당 안치
4. 개장 후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5. 공고기간 : 2009. 7. 15. ~ 2009. 10. 14.(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가 개장
- 무연분묘 : 사업시행자가 임의개장
7. 신고처
- 국도 77호선 해남 남천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 : 현장사무소(☎011-872-3619)
- 광주국도관리사무소 관리과 (☎062-970-6322)

2009. 9. 16.
광주국도관리사무소장

사/원/모/집

모집부분	모집인원	담당업무	자격요건
식음료파트	남,여 0명	웨이터,웨이츄리스	신입 및 경력
그늘집	여 0명	판매담당	주부가능(40세 이하) 컴퓨터 활용 가능자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서류심사 합격자 한해서 개별통보)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접수처
- 이메일 및 우편접수 가능
- 이메일 : mannerwang@hanmail.net

▶근무조건
- 4대 보험가입, 기숙자제공, 우수사원표창
- 경조금, 의료비지원

▶기타사항
- 경영지원팀 최관식대리
- 연락처 : 061)320-7716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正心 正視 正行

☎ 명당 공인중개사 062)431-2834. (H.P) 010-6460-2834

추천물건

▶전남 순천시 주암면 오산리 축사(돈사) : (대1,129평 축사동 710평)
-감정가 3억2천만, 매매가 3500만, 주택,유류 및 태양열난방 방 4개 등)
-지목 : 목장용지, 잡종지 등,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2차선포장도로 근접)

▶전남 영암 군서면 도장리, 임 6899㎡(2,087평) : ㎡당 4천원(투자가치 매우 양호)
-계획관리지역으로 지목은 임야나 현황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차선 포장도로에 접함.

▶광주 북구 우산동 현대아파트 부근, 대 93평 건 198평 지하1층 지상3층
-감정가 6억7천만 매매가 3억8천만 (지하층,1층 상가, 2~3층 주택)

투자가치있는 주택 및 상가

▶전남 장흥 관산면 와동리 주택 [대 270㎡(82평),건 155㎡(47평)]
-국도부근 포장도로접, 감정가 2280만, 매매가 800만, 소액투자 적합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상가주택(대지 151평 건 151평)매매가 2억7천만
-장흥군청 남서측인근위치, 감정가 4억1200만, 매매가 2억7천만 60평 포장도로접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주택(대지 216㎡(665평),건 125㎡(38평)매매가 3700만
-비닷가앞 전망 좋음

저렴하면서 가치있는 임야

▶전남 화순 이양면 초방리 임야 104,727㎡(32,000평) : ㎡당 2천원
-관리지역 일부 포함, 계곡 및 저수지형, 전나무 삼나무식재, 목장등지 가능.

시세보다 저렴한 농지

▶광주 북구 태령동 영락공원 부근, 답 864㎡(261평) 매매가 3200만
-도로접, 현황, 전(이팝나무 식재), 묘지 및 주말농장 적합, 인원소지 없음

▶전남 화순 이양 이양리 9,902㎡(2,995평 ; 전 1825평, 임 1,170평) 매매가 3천만원
-포장도로에 접해 있으며 완경사, 현황은 목전임

▶전남 나주시 공산면 남창리 답1005㎡(304평) : 매매가 800만원
-신흥제 북서측인근에 위치, 3m포장도로에 접함, 감정가 905만원

▶전남 영암군 시종면 와우리 전 932㎡(282평) : 매매가 400만
-지적도상 맹지이나 농로 접함, 묘지 적합, 감정가 650만

▶전남 영암군 시종면 월악리 답 1630㎡(493평) : 매매가980만원
-송월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 농로에 접함 : 감정가 1200만

▶전남 영암군 신북면 학동리 답 3350㎡(1013평) 매매가 2500만
-농로에 접함, 감정가2850만, 매매가2500만

▶전남 고흥군 도양읍 관리 답 2347㎡(710평) : 매매가 1천만원
-감정가 1800만, 실거래가 2500~3천만, 매매가 1천만, 콘크리트농로접.

▶전남 보성군 노동면 용호리 답 629평 매매가 600만
-수촌마을 서측근거리 위치, 감정가 1050만, 매매가 600만

▶전남 완도군 고금면 세등리 전10754㎡(3253평) 매매가 5천만
-유자나무 10년 이상 성목 약 200그루 식재, 감정가 7800만(매매가 5천만)
-지적도상 맹지이나 약 3미터의 농로에 접함

♣ 필요하신 각종 토지를 용도에 맞춰 최선을 다해 구해드립니다.

HOMECON 홈컨 不動産 리서치
TEL:062-233-2222 H·P:011-616-8698

태양광발전소 부지 급구함

■지역 : 전남 · 북, 기타지역
■용량 : 100KW이상~ 무제한
■조건 : 민원해결 개발행위허가 발전사업허가 완료된 곳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10-7 유지빌딩 501 (상무지구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사옆)

부동산투자클럽

T. 011-641-0925, (062) 515-4985

토 지
▶담양 창평 펜션부지(계획관리지역) 3,342㎡ 매 4억6천
▶남평읍(중흥스파입구) 16,810㎡ 매 4억5천
▶북구 용봉동 대지 914㎡ 매 8억5천
▶광산구 요기동 답 3,000㎡ 매 1억3천
▶화순읍 계소리(자연녹지) 1,362㎡
▶무안군 일로읍(계획관리지역) 답 2,437㎡
▶무안군 운남면 관리지역(해변가) 전 23,600㎡
계획관리지역 전 5,140㎡
▶화정동 터미널 인근 대지 1,016㎡

상가건물
▶용봉동(2층) 매 1억9천(보 5천/월 90)
▶오치동(6층) 매 17억(보 2억/월 1천2백)
▶고시텔(5층) 매 8억5천(월 1천2백)
▶용봉동(3층) 매 4억(보 7천/월 2백)

식 당
▶월출산 입구 가든식당 7,665㎡ 매 7억5천
-펜션 부지최적
▶(담양,장성 성업중인) 대 690㎡ (매 1억5천)
대 2,700㎡ (매 3억5천)

광주시내권 원룸부지, 담양인근무인텔부지 급구함
경매부동산상담, 대출상담, 각종부동산투자상담

부동산투자클럽 공인중개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70-3(용봉동 하이마트 옆)